

고객감동 위한 '세정혁신 워크숍'

포천시 세무공무원 납세편의 시책개발



포천시 세무공무원들이 주민에 대한 무한 봉사 및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포천시는 최근 세정과 세무공무원 34명이 참여한 가운데 효율적인 세무행정과 고객감동을 위한 '세정혁신 워크숍'을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이틀간 개최했다.

7개 분과로 구성 운영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력이나 예산의 추가 투입 없이 납세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세무행정조직의 발전적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세무공무원을 바라보는 사회 일각의 급지 않은 시선을 개선하기 위한 '세무공무원의 사회적 기여 방안' 등, 모두 7개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또 행정자치부 지방감사팀의 성

문욱 감사관이 특별강사로 참여해 '지방세의 감세방향과 지방세무공무원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연구과제 평가 결과, 세무조사팀의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납세편의시책 발굴 연구'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세외수입팀의 '공평과 세 및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체납세 정리방안 연구'가 우수상을, 과표팀의 '세정발전연구회(세무공무원의 연구모임) 성장 방안'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워크숍을 마친 세무공무원들은 소백산 등정으로 단합을 도모하는 한편 고객감동을 위한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연구,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포천시청 세정발전연구회는 본연의 연구활동 이외에도 자연정화 및 복지시설방문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공무원 연구동아리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카메라고발

인도위에 세워진 불법간판



포천시 선단동 43번국도 인도위에 세워진 불법간판이 버젓이 세워져 있으나 관계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글 이흥우 조사위원회 총무

'괴화동1길'로 고쳐주세요

포천시 가산면 우금2리 '괴화동1길'이 '괴하동1길'로 잘못 표기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드러나무 괴, 꽃 화자를 써 괴화동임에도 불구하고 괴하동으로

잘못 표기된 것. 탁상행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어 수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사진·글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목회단상

부부(夫婦)(1)



김형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비아호로 결혼시점이 되었다 꼭 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을은 오곡백과가 풍성히 영그는 계절에 한 가정을 이루는데 정서적으로도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

부부란 두 개의 반쪽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전체가 되는 것이다. 한 몸이 된다는 결혼서약(結婚誓約)은 두 개의 물방울이 모여 한 개가 되는 것과 같다. 부부는 가위다. 두 개의 날이 똑같이 움직여야 가위질이 된다. 날 한쪽만으로는 아무리 좋은 쇠라도 가위는 못된다.날이 두 개 있어도 간격이 있어서 가위질이 안된다. 바짝 붙어 조화를 이뤄야 한다.

'부부는 일체지만 주머니는 따로 있다'는 유대인의 속담은 배격되어야 한다. 부부는 주머니도 하나이어야 한다.

부부란 피차의 실수를 한없이 흡수하는 호수이다. 이 호수는 무척 깊어 실수의 크기는 그다지 문제가 안된다. '부부 싸움이란 칼로 불베기'란 한국속담은 명언(名言)이다.

좋은 남편은 귀머거리다. 좋은 아내는 소경이다. 좋은 남편

은 골라서 듣는다. 안 들어도 좋을만한 것에는 귀머거리가 된다. 좋은 아내는 골라서 본다. 안 보아도 좋을만한 것에는 소경이 된다. 좋은 남편은 고개로 사랑한다. 끄덕끄덕하는 약간의 고개운동이 아내를 안심시킨다. 좋은 아내는 눈으로만 살짝 흘기는 다소의 근육운동이 남편을 안심시킨다. 여기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진다. 성서는 이렇게 교훈하신다. 베드로전서4장3절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일러주신다.

문의) 031-532-2489

특별기고

흙건축과 비용

장덕철
해동 흙건축학교장



건축의 비용을 이야기 할 때 보통은 건축하는 과정에서의 비용, 즉 집을 완성하기까지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비용에는 <건축 후의 비용>도 있다. 즉 집을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이다. 건축 후의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에너지 비용>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건축 과정에서 비용보다는 건축 후의 비용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가 있다. 집이란 1.2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 중에 가장 큰 몫을 드는 경우가 집을 마련할 때이다. 이 경우 그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일 때든 돈이 적은 사람일 때든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세상에는 돈많은 사람보다는 돈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금전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을 정도로 성공한 사람의 수는(금전적 성공이 성공이라 할 때) 열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 된다고 한다. 나머지 아홉 사람에게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일생 중에 가장 큰 숙제로 남는다. 그리고 예전에는 흙집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었지만, 흙집이 부유층의 집이라고 인식이 될 정도로 고비용

의 집이 되어버린 요즘에 흙집을 짓고 사는 것은 사치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먼저 건축 과정의 비용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집값에는 땅값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땅 값의 경우는 땅이 사고 파는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무상임대가 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주고 사야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땅이 무상임대되는 사회체제로 바꾸어야 된다고 하면 이미 건축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이 되고, 땅을 사기 위한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또한 건축의 범위를 벗어난 이야기라고 가정할 수 있다.

건축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설계비와 자재비와 인건비로 구성이 된다. 먼저 설계는 누가 할 것인가? <자연 건축>에서의 기본 원칙은 <셀프 헬프>이다. 즉, 내가 내 집을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내 집을 내 손으로 짓는다>고 할 수 있다.

설계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건축 공학>과)가 없었던 옛날에도, 즉 설계전문가가 없었던 시대에도 집은 지어졌고, 그것도 좋은 집을 지었다. 그렇지만 한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건축 법규>이다. 아무리 멋진 집도 건축법규를 어기면 불법 건축물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건축 법규에 정통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 건축 법규에 정통한 전문가(건축사)나, 건축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 현행 건축법상 30평(100 제곱 미터)이하의 주택은 건축주가 설계를 해도 된다. 이를 <건축 신고 사항>이라고 한다. 그러나 30평이 넘게 되면 건축사의 설계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건축 허가 사항>이라고 한다.

한 가족이 살아가는데 30 평이 넘는 집을 짓는 것은 필요 이상의 집을 짓는다고 보면 된다. 이 정도의 면적이면 5인 가족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집이 된다. 그 이상의 면적의 집을 짓는 것은 <자연 건축>의 취지와 의미

가 제작한 도면이 아니라도 면적과 평면 구성을 표시한 간단한 평면도를 제출하면 된다. <간단한 평면도>를 그리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다만 그 지형에 맞으면서 편리한 <기능>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닌 건축물을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듯도 저렇듯도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마음에 드는 집의 형태와 평면 구성을 유심히 관찰하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심(concern)은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관건! 이 된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의 형태와 평면 구성을 응용하는 것이다. 그림에는 서투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공간의 배치나 크기, 그리고 형태는 깊이 몇 번이고 생각하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간단한 평면도를 그리면 되는 것이다. 즉 내 손으로 설계 도면을 그리게 되는 것이다. 그림에는 서투르다면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음 호에는 자재 비용에 대해서 말 씀드리기로 한다. 필자연락처: 011-628-4214



보육상담

좋은 보육시설(어린이집) 선택하는 방법(2)

보육시설을 선정할 때는 집에서 가깝고 좋은 교육내용을 좋은 교사가 좋은 환경에서 가르치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문만 듣고 선택하기 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보육시설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셔서 아이에게 맞는 기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1. 보육시설 외부환경을 살펴보세요.

◆위치와 구조 주변환경이 아이들에게 해가되지 않은지, 단풍건물이 아닌 기관인 경우 출입구, 계단등이 아이들이 드나들기에 위험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 등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한 대피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교실이 지하나 2층 이상인 곳은 좋지 않습니다.

◆셔틀버스

아이와 셔틀버스를 타고 다니게 될 경우 안전한지 따져보고 운행중 또는 내릴 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아보고 아이가 버스에 타고 있는 시간이 길면 좋지 않으므로 운행 변경이 없거나 되는가를 알

아야보아야 합니다.

◆실외환경

아이들이 활발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 실외 환경,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실외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시에서는 이런 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물놀이나 모래놀이를 할 공간이 있는지, 놀이기구들은 안전하게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아이들이 물, 흙, 공기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보육시설 실내환경을 살펴보세요.

◆실내환경 실내에 들어서면서 받은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조금 허름해 보이더라도 아이들의 글이나 그림으로 꾸며져 있다면 아이들의 창의적인 표현을 중시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환경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고 안전하며 편안해 보이는지, 놀이감이 풍부하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사와 아이들의 모습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살펴 보십시오. 아이들이 자유롭게 즐겨워 보이며 교사가 개별적으로 많은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고 함께 놀아 주는 좋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자칫 자유롭고 즐거워 보이는 모습과 무질서한 모습을 혼동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좋은 기준은 한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놀이를 하기 위해 다른 아이를 방해하는 것을 본 교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냥 모른 척하거나 대강 넘어간다면 아이들이 무질서하게 생활하는 곳이고, 교사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방해

자위를 누리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사대 아동 비율

취학 전 아이들에게는 개별적인 도움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책임질 아이가 많을 수록 교사가 일일이 아이들을 돌볼 수 없고, 아이의 개인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전체를 통솔하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교사대 아동의 비율이 낮은 곳이 좋습니다.

◆교사대 아동 비율

다. 특히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교사대 아동의 비율이 낮은 곳이 좋습니다. 인경준 중앙특수어린이집 원장 (031-534-0277)



故釣月人金縉字東字의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가 아립니다.

8월12일 홀연히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故釣月人金縉字東字)의 장례식에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시어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하여 주신 덕으로 지난 9월 12일 영천 호국원에 영원한 안식처로 모셨습니다.

거듭 머리 조아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뢰는 이 孤子 柱顯
盱眩
(未亡人 朴英子)